

“한·미 자동차 노동자 공동대응으로 공급망 위협 막자”

금속노조·전미자동차노조, 상호 협력 약속 ... 조직화 사례 등 주기적 소통하기로



한국과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이 공급망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기로 약속했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에 함께 힘 쏟기로 했다.

금속노조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 노동자 권리 보장 상호 약속’ 체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와 UAW는 양국 정부와 자동차 기업들의 산업전환 전략에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본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두고 서로 다투도록 부추긴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산업 공동화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우긴다” 라고 토로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UAW가 맺은 약속은 어느 일방이 아닌 노동자 모두가 이기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미” 라며

“오늘 금속노조와 UAW 만남이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 연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경쟁의 굴레로 밀어 넣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 단결과 연대로 승리하자” 라고 강조했다.

UAW를 대표해 티모시 스미스 8지역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스미스 본부장은 “이미 전 세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공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일본·유럽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무노조 공장을 운영한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임금을 억누른다” 라고 꼬집었다.

스미스 본부장은 “산업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자본은 값싼 노동을 계속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다” 라며 “UAW와 한국 금속노조가 자본의 탐욕을 멈추기 위해 오늘 만났다.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 분열 전략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한다. 노동자가 산업 미래를 만드는 주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자” 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와 UAW는 양 노조 상호 약속에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한 전 세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와 협력, 상호지원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을 담았다.

다음으로 ▲교섭 등 각국 노조 소식 ▲정부 노동·산업정책 변화 ▲자동차 산업·공급망 미

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례 ▲상대 노조 조합원에게 영향을 끼칠 사용자 측 중대한 결정 등을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금속노조와 UAW는 주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매년 정례 회의를 열고 상대 노조를 지원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도 이날 양 노조의 상호 약속 체결에 지지를 보냈다. 윤용신 노조 한국지엠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 노동자들과 UAW는 서로 협력 관계에 놓여있다. 자동차 산업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전 세계 완성차와 공

급망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오늘 결의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산업 대변화 속에서도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는 국가는 없지만, 자본들은 산업전환을 빌미 삼아 노동자 고용과 권리를 위협한다. 국제적인 계급적 단결과 연대로 현재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극복하자” 라고 말했다.

7.16 총파업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

날마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덥다는 말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상 기후입니다. 무더위 탓에 실제로 야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폭염 노동을 걱정하는 보도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체, 기업의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더위는 걱정이지만 성장과 이윤을 위한 강행군은 조금도 풀어 줄 수 없다는 것이 자본과 권력의 본심입니다.

우리 노동자가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기만 하면 알아서 보상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조합원 동지는 없으실 것입니다. 정당한 보상도 당연한 안전도 인간다운 대접도 현장의 노동자가 고개를 들고 싸울 때만 우리 것이 됩니다. 싸울 때 승리하고, 싸워야 되겠다는 진리가 금속노조 24년 역사의 전부입니다.

이제 그 역사를 7월 16일, 금속노조 총파업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트럼프의 변덕질로 전 세계 무역과 생산 공급망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우리의 일자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방어하는 정부의 현명한 대책만큼이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내 자신의 일자리에서 시작해 한국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노동자에 강경하고 외국 기업에는 부드러운 정치인과 관료들 탓에 고통받는 외투기업의 동지들과도 굳건히 연대합시다. 외투기업과 사모펀드의 기업 망치기를 새 정부는 단호하게 바로잡으라고 목소리를 키웁시다.

그 길은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윤석열이 구속됐는데도, 윤석열이 만든 회계공시는 버젓이 살아있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총파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제조업의 보호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산별교섭의 실현을 위해! 노정교섭을 반드시 쟁취합시다! 이 무더위 속에서 모든 노동자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미래를 쟁취합시다. 투쟁에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승리를 위해 7월 16일, 공장을 멈추고 파업의 깃발로 모여 주십시오. 투쟁!